

‘勞風’ ‘盧風’... 뜨거운 6월 광주

화물연대·금속노조 총파업 ... 6·10집회 긴장 고조

물류대란 우려도

화물연대가 11일 총파업(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또 다시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새벽 0시를 기해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부장, 지회장 등 간부 조합원 1천 명은 이미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선도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지역에서는 120명의 간부들이 동참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19일과 20일 총파업에 들어가고 보건의료노조도 10일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뒤 이달 말께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노조들의 연쇄파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잇단 파업 예고-운송차질 불가 피=화물연대 광주지부는 10일 오후 3시 광주공인 앞길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사전 결의대회'를 연 뒤 다음날 새벽 0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 광주지부와 전남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2천700명이다. 시도지역을 차고지로 등락한 1~25t 화물차는 3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광주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여수 국가산단, 광양 컨테이너 부두 등의 운송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비조합원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할 경우 물류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도 19일과



“6·15 10·4 선언 이행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통일선봉대 소속 조합원 50여명은 9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라”며 자전거 퍼포먼스를 벌였다.

20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만 8천 명이 가입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0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뒤 19일과 20일엔 전 조합원의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달 들어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 씩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 중대형 병원 노조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도 산별 집단교섭이 결렬될 경우 이달 말께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시·도 대책은=광주시와 전남도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비해 운송사 운송보호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총파업 돌입과 함께 각

자치구에서 8t 이상 일반 화물차 618대에 유상운송허가를 내주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지난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대비,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또한 사업장 동향 파악은 물론 비조합원 차량 조회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10일 예정된 화물연대 파업이 사실상 대한통운 내부 문제로 시작된 만큼 큰 걱정은 없지만, 파업이 6월 정국 등 현 시국과 맞물릴 경우 파업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 비상-총출 우려=광주시

방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과 6월 항쟁 범국민대회 등 대형 집회 및 시위를 앞두고 이미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경찰은 10일 광주공원에서 열릴 출정식 현장 주변에 경찰인력 300명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길에서 열릴 예정인 ‘6월항쟁 범국민대회’의 경우 시민단체 등 범야권을 포함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이 함께 참여키로 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유족들 마음 바꾼 경찰 동료애

목포 지구대 피의자 사망 ... 역대 모아 합의 이끌어

목포에서 발생한 지구대 피의자 사망 사건이 동료 경찰관들이 끈끈한 동료애를 발휘해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단락됐다.

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지구대에 연행된 폭행 피의자 김모(43)씨에게 재갈을 물려 숨지게 한 담당 경찰관들이 김씨의 유족들에게 1억7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

특히 김씨의 유족들은 당초 경찰과의 합의를 거부했으나 목포경찰서 직원들의 남다른 동료애 등을 지켜본 뒤 합의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목포경찰서 직원 534명은 지난 달 14일 동료 경찰관 A씨 등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결의한 뒤

자발적으로 하루 만에 1억원 이상의 거액의 성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성금을 ‘십시일반’ 모으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경찰은 김씨의 유족들과 담당 경찰관 등이 형사합의를 함에 따라 A경찰관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처벌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4월 21일 새벽 폭행사건으로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에 연행된 뒤 “수갑을 풀어 주지 않으면 혀를 깨물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에 의해 입에 재갈이 물려진 채 의식을 잃은 뒤 11일 만에 숨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목포=이상희기자 lsh@

진선기 광주시부위원장실 압수수색

자서전 무상배포 혐의

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광주시의회 진선기 부의장실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보좌관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5대와 초청장, 방명록 등 출판기념회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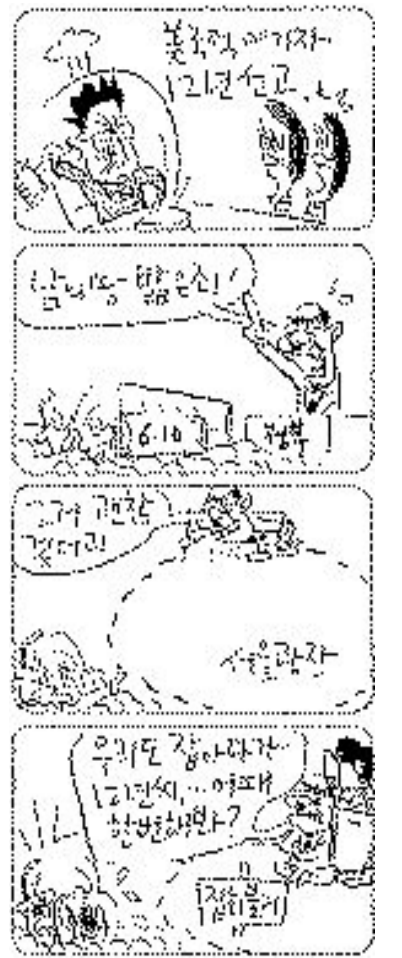
경찰은 진 의원이 지난 3월 21일 광

주 모 중학교 강당에서 가진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 형식의 책을 무상으로 배포한 혐의로 진 의원의 사무실과 수사에 착수했다. 진 의원이 무상 배포한 책은 20여 권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보좌관이 책을 임의로 배포했으며 배포를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안에 진 의원과 보좌관 등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나원침 (7825) 김장동



다시마 창고 방화 40대 검거

안도경찰은 9일 해산물 보관창고에 불을 지른 최모(47)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씨는 8일 밤 안도군 A(60)씨의 해산물 창고에 불을 질러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불을 질렀다”는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선후배 차량탈이범 지문 남겨 '덜미'

○생활비와 유혹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탈이에 나선 고향 선후배가 범행현장에 지문을 남기는 바람에 나란히 경찰사형.

○광주북부경찰은 9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들며 상습적으로 차량탈이를 한 장모(20)씨 등 2명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장씨는 지난달 12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정모(39)씨의 개인택시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8만원을 가져가는 등 14회에 걸쳐 4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석달 전 동반 가출한 뒤 사글세 방을 구해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모의했는데, 경찰은 피해 차량 안에 묻은 지문을 토대로 이들을 검거.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금남로 '반쪽' 봉쇄 ?

경찰, 무등빌딩~금남공원 3개 차선 차단 ... 6월항쟁 준비위 강력 반발

6·10 항쟁계승 광주지역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시민불편과 정치집회 변질 우려 등을 이유로 집회 장소를 제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 광주·전남준비위원회’ 임낙영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은 9일 오후 광주동부경찰서를 향의방문해 “집회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며 참가 시민들의 질서와 안전에도 위험이 있다”고 재고를 촉구했다.

최근 범국민대회 집회신고를 마친 이들은 “10일 예정된 국민대회

에 4~5천 명 참가할 예정”이라며 “노 전 대통령 추모제를 비롯한 기존 집회와 마찬가지로 금남로 분수대에서 금남공원까지 모든 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왕복 6차선을

집회장소로 이용할 경우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불편과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크다”며 “주최측 주장과 달리 집회에 참여할 시민들이 1천 명 안팎으로 추정되므로 무등빌딩 앞에서 금남공원까지 한쪽 3개 차선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5월에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여러 번 진행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집회 참가인원이 늘어나면 지난해 노 전 대통령 추모제처럼, 유연하게 차량을 통제하고 집회 장소를 늘려줬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마약 사려고 신분증 위조 40대 구속

전남경찰, 공범 5명 추적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9일 운전면허증과 졸업증명서 등 각종 신분증을 위조해 판 박모(40)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친구 김모(40)씨 등 공범 5명과 함께 지난 4월 초부터 인터넷 모카페를 통해 ‘신분증 제작’이라는 문통제하고 집회 장소를 늘려줬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마약복용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4월 출소한 직후부터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고 위조신분증은 택배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교도소에서 컬러복사기와 고감도 필름 등을 이용해 신분증 위조 기술을 배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왔다. 경찰은 ‘대포 통장’ 등을 분석해 정확한 판매규모와 위조 신분증 구입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들을 쫓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성남의 힘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Sungnam (성남) is a brand that has become a symbol of success and achievement.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large, stylized tree with the word '성남' (Sungnam) written vertically on it. The text around the tree emphasizes the brand's commitment to quality and its role in helping people achieve their goals. The overall design is clean and professional, with a focus on the brand's name and its associated success.